



천국으로 보내는 그리움의 조각들

그리움의 조각들을 모아 하늘 소망으로 엮어
우리의 기억 속에 담은 당신의 향기!



(재)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
Christian Memorial Park





천국으로 보내는 그리움의 조각들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
Christian Memorial Park

『천국으로 보내는 그리움의 조각들』을 발간하며



재단법인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가 창립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귀한 『천국으로 보내는 그리움의 조각들』을 발간하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2004년 새로운 기독교 장묘문화를 선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기도의 동산 오산리최자실금식기도원과 인접한 곳에 봉안시설을 유치하여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15년간 많은 분들이 이곳에 모셔졌고 또 모셔진 분들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유족분들이 재단의 역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끊이지 않는 추모객들의 발자취와 함께 고인을 향한 애뜻하고 정성 가득 담긴 그리움의 글들이 봉안단 곳곳에 남겨져 있어 그 글들을 여러 방문객들이 읽어보고, 아쉬움과 그리움, 그리고

슬픔과 위로의 느낌과 감정들의 공유를 통해 내가 찾아뵙는 고인에 대한 기억도 아름답게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몇몇 편지글들을 모아 전시회를 가졌던 것이 추모의 글을 공모하게 된 시작입니다.

그 첫 번째 공모전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제3회 추모의 글 공모를 지난 4월 한 달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유가족분들이 고인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다양한 형식의 글들로 승화시킨 정성이 가득 담긴 공모작품 5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한 편, 한 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소홀함이 없도록 전문 작가들이 참여하는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20편의 글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글들은 추모공원의 특별한 공간에 전시할 계획입니다만 일정 기간의 특별전시 후에 관내 여러 곳에 흩어져 전시되는 연유로 많은 분들이 좋은 작품을 접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올해에는 오랫동안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패널을 만들어 전시회를 열고,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 곳곳에 걸어두었던 지난 제2회 공모전 작품들도 올해 선정된 작품과 함께 이 책에 담았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그리움이 묻어나는 이 책이 소장의 기쁨을 드릴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

크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고운 글들이 함께 읽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하는 이를 추억하고 남은 이들과 교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평안과 천국의 소망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독교 신앙생활과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주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는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 6.

(재)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 이사장 **김윤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계 21:4)

목차

『천국으로 보내는 그리움의 조각들』을 발간하며 김윤배	04
-------------------------------	----

1부 그리움은 시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천사가 된 동우에게 박보경 사랑상(2018)	12
아빠 진경인 믿음상(2018)	14
4월에 만나 4월에 헤어진 너무 그리운 우리 아빠에게 진경인 믿음상(2018)	16
할머니를 그리는 봄 고은채 소망상(2018)	18
아린 가슴 널 보러가네 박숙희 화평상(2018)	20
사랑하는 할머니께 안예린 화평상(2018)	22
보고 싶은 아들 형석에게 권덕자 화평상(2018)	24
뜨거운 안녕 이재춘 화평상(2018)	26
현주야 보고 싶구나! 김준 화평상(2019)	28

2부 그리움은 글이 되어 소망을 낳다

아빠가 그리운 날엔... 전재희 믿음상(2018)	32
시아버지 사랑 나만큼 받은 사람 또 있을까요? 전해수 믿음상(2018)	35
봐라!! 엄마 참 씩씩하지 정옥경 소망상(2018)	38
안녕 할아버지 노하진 소망상(2018)	41
이 추모의 글이 당신이 계신 천국에 전달되기를 소망하면서... 박경순 소망상(2018)	43
나의 영원한 아빠 이인선 소망상(2018)	46
나의 사랑하는 아들 박미선 화평상(2018)	49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어머니! 김명춘 화평상(2018)	52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사랑하는 당신에게 최경재 화평상(2018)	57

아버지 김현철 화평상(2018)	60
오빠야!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오예은 화평상(2018)	62
어느 날 엄마에게 찾아온 나의 아들 명환아! 김순옥 화평상(2018)	64
어머님께 보냅니다 노상범 화평상(2018)	67
엄마 신혜철 사랑상(2019)	70
아버지 아리아 강기원 소망상(2019)	73
하늘나라로 먼저 가신 아버지께 박종호 소망상(2019)	76
천국으로 보내는 편지 백재심 소망상(2019)	80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 조혜경 믿음상(2019)	83
미소 천사 우리 오빠에게 오예은 믿음상(2019)	85
우리 곧 다시 만나요 김 에스더 믿음상(2019)	88
사랑하는 우리 딸 미경에게 김광수 믿음상(2019)	91
Dear. 아빠 백향은 믿음상(2019)	93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박상규 화평상(2019)	96
사랑하는 어머님, 보고 싶은 어머님 윤재식 화평상(2019)	101
사랑한다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해 안여진 화평상(2019)	105
할머니의 기도 전해수 화평상(2019)	109
사모곡 이동준 화평상(2019)	112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께 김봉춘 화평상(2019)	115
아! 나의 어머니, 천사 같은 어머니 안호소 화평상(2019)	117
엄마 김임진 화평상(2019)	120
나의 영원한 남편 당신에게 김정애 화평상(2019)	123
소풍(소소한 일상 가족풍경) 박지연 화평상(2019)	125
심사평 1 (재)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 <제2회 추모의 글>	128
심사평 2 (재)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 <제3회 추모의 글>	130



제1부

그리움은 시가 되어
하나님 나라로



천사가 된 동우에게



박보경 | 사랑상

사랑하는 나의 아들 동우야
네가 천국에 간 지도 어느덧 4년의 세월이 흘렀구나.
너를 보내고 많은 나날들을 슬픔 속에서
정신은 반쯤 나간 상태로 한참을 보냈단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묻기도 하고, 원망도 해보고 말이다.
13살 어린 나의 귀여운 막내를...

동우야
어느 날 꿈속에 네가 찾아와 나에게 이야기 해주었지.
“엄마 너무 슬퍼 마세요.
저는 예수님 사랑 받으며 천사들과 놀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이후부터는 너를 보러 가는 길이
행복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었단다.

그러나 교회에서 너와 놀던 친구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동우만 없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시리고 아프구나.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네가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래도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에 널 보러 올 때마다
항상 들려오는 찬양 소리에 여기가 천국이구나.
우리 동우는 매일 이곳에서 찬양을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멋진 경치 구경하며 행복하겠구나 하며
위안을 얻는다.

사랑하는 아들 동우야,
엄마도 열심히 주님 사랑하며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서 우리 행복하게 다시 함께하자.

안녕, 사랑하는 엄마가

아빠



진경인 | 믿음상

아빠 보낼 때 못 울었던 거 요즘 매일같이 울어.

다음에 만나면 안 싸울 수 있게 빨리 철들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면 꼭 돌아와.

결혼 안 해도 돼.

아빠가 바라던 대로 아빠랑 평생 살게.

다리도 열심히 마사지해 줄게.

나 아직도 마사지 방법 보면서 혼자 공부해 놔.

아빠 없는 거 자꾸 까먹어.

아빠가 내 어깨 잡고 걷던 게 너무 무거웠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그립고

내 다리 위에 아빠 발 올리고 텔레비전 보던 게 불편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슬퍼.

아빠 다음에 만나면 사춘기 따위 겪지 않을게.
더 좋은 딸 할게.
그러니까 꼭 내 아빠 해줘.
아빠 정말 많이 보고 싶어.
매 순간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조금 오래 걸려도 나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꼭 찾아갈게.

못 가본 가족 여행, 못 찍은 가족사진,
다 같이 보려던 만화책, 영화
그때 다 하자.
못 해본 거 다 해보자.
아빠랑 이야기했던 거 만들려고 전공을 조금 바꿀 거야.
잘 되게 기도해 줘 아빠.
더 예쁜 하늘 만들고 갈게.
꼭 기다려 줘. 사랑해 아빠.

사랑하는 딸 경인이가

4월에 만나 4월에 헤어진 너무 그리운 우리 아빠에게



진경인 | 믿음상

구름이 잠시 내려앉은
4월에는
아련한 추억으로 괴롭습니다.
안개가 만들어 낸 꽃을 보듯
무성한 안개뿐인 추억 속에는
행복한 웃음이
봄에 빛나는 벚꽃만큼이나
화사합니다.

구름이 잠시 머물다 가는
4월에는
너무 많았던 행복으로 슬퍼집니다.
따뜻한 행복이 나를 감싸면
끊임없이 불어오는 그리움에

벚꽃 잎이 계속해서 흘러내립니다.

또다시 벚꽃이 피는
4월의 봄에는
모든 것이 사라진 지금에
혼자만 여전한 내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당신이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4월에는
내 마음에 너무 아픈 뿌리를 내린
눈부시게 아름다운 벚꽃이
또다시 피어납니다.

할머니를 그리는 봄



고은채 | 소망상

따뜻한 날을 좋아하시던 할머니께서는
이른 3월 반짝 찾아온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던 날
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매년 봄이면 손수 캐오신 썩으로 떡을 빻곤 하셨지요.
그러나 작년 봄이 당신의 마지막 봄이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캐놓으신 썩은 끝내 떡이 되지 못하고
냉동실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안 계신 이곳에도 다시 봄이 오고 꽃이 피건만,
제 마음만은 여전히 겨울인 듯 허전하기만 합니다.

때로는 밥 든든히 챙겨 먹고 다니라며
만 원짜리 쥐어주곤 하셨지요.
나중에 멋진 어른이 되어 갚아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은 영영 이룰 수 없는
혼자만의 다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차피 아껴 쓰며 모아둔 그 돈으로
작은 선물이라도 해 드릴 걸...
이제서야 몰려오는 후회가 두 눈에 맺혀 뜨겁게 쏟아집니다.

임종을 앞둔 마지막 밤,
그동안 이 못난 손녀딸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흐느끼는
제게 대답처럼 나지막이 내뱉으신 숨소리를 기억합니다.

따뜻한 봄 햇살처럼 가족들을 품어 주셨던 할머니.
그 사랑을 추모하듯 화사하게 피어나는 꽃을 바라보며
오늘도 당신을 추억합니다.

아린 가슴 널 보러가네



박숙희 | 화평상

날아가는 새 바라보며
“저것 봐.”
하얀 이 드리우며,
활짝 웃던 해맑은 너의 모습.

아직도 눈에 삼삼한
아름다운 황금 나라,
훨훨 날고 있는 거니.

마흔셋 해 보내며,
얼마나 많은 세상 날아 보았니.

뭐 그리 바쁘고 힘들어
너의 얘길 못 들었나.

나의 부족 널 보내고
아린 가슴 널 보러 가네.

꽃과 나무 숨을 쉬고,
바람 구름 춤을 추며 머무르는.

하나님의 사랑 햇빛 되어,
따사로이 영혼 감싸
그곳에서 기다리렴.

언젠가 다시 만나,
너랑 나랑 훨훨 날며,
주님과 서로 함께
못다 한 네 이야기 들려주렴.

보고프다.
아들아.

사랑하는 할머니께



안예린 | 화평상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주신 예수님같이
온 삶을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나의 할머니,
조정임 할머니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나도 있고
당신의 믿음이 있었기에 내가
사망이 아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권세 안에 있습니다.

몸소 본을 보이신 그 모습을 따라 나도 밀알처럼,
사랑과 순종으로 썩어지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소망합니다.

나의 할머니, 나의 할머니.

이제 안을 수도 없고
입 맞출 수도 없고
곁에 누울 수도 없겠지요.

얼굴을 어루만져 주시던 할머니의 손길이 그림습니다.

그러나 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그곳에서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있으실 할머니를 떠올리면
무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계시는 할머니,
그곳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저를 지켜봐 주세요.
당신의 열매로써 부끄럼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머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머지않은 날에 만나요.

사랑하는 할머니의 손녀딸 안예린 올림

보고 싶은 아들 형석에게



권덕자 | 화평상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마다 달마다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혹시나 하고 아들 있는 곳을 바라본단다.

숨 쉬는 순간마다 너의 환한 모습이
한없이 그리워 어느새 뜨거운 눈물로 변한단다.

사랑하는 아들 형석아!
지금쯤은 천국도 낯설지 않고 익숙해져 있겠지!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발 노릇을 하겠지.

착하고 거짓 없고 배려심이 많은 아들
큰소리로 아들이! 형석아! 하고 불러 보고픈 이름
달려가 너의 품에 안기고 싶구나.

하지만, 미안해. 지켜주지 못한 어미, 가족들,
네가 있어 행복했던 날들을 기억해 본다.
아들아.
보고 싶다, 너무 많이...

소풍 나온 길목에서 엄마가.
2018. 04. 19.



뜨거운 안녕



이재춘 | 화평상

따스한 봄이 오면
다시 오시겠다던 어머니.
생명이 움트는 봄을
그토록 좋아하셨던 어머니.

다 못다 한 사랑이 가슴을 저미네.
봄은 변함없이 가고 오는데
한번 떠난 어머니는 오시지 않네.

연분홍, 노오란 꽃잎에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했던 봄을 입 맞추니
어머니가 보고파.
흐르는 두 줄기 눈물이 앞을 가리네.

그리고 조용히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모읍니다.
안녕이라고...



현주야 보고 싶구나!



김준 | 화평상

현주야 보고 싶구나!

벌써 두 해가 지나 어느덧 그렇게 4월이 되었네.

연분홍 벚꽃과, 노오란 개나리가

서로 색을 자랑하듯 한참 예쁘구나.

너를 만나러

한 달에 한 번 가다가

두 달에 한 번,

그러다 이제는 석 달에 한 번만큼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단다.

이렇게 꽃이 피는 계절이면 네 생각이 많이 난단다.

서대문으로 신촌으로 다니던 학창시절

단아하게 교복 입은 네 모습….

시청 앞 회사 다닐 때 “오빠” 하고 반기며 환하게 웃던
너의 모습이 지금도 그곳에 가면 있을 것만 같구나.

예전에,
주일이면 부모님들 교회 가서서 자고 있던 너에게 밥 차려 달라
떼셨던
그때 그런 그 모습이 눈앞에 어제 일처럼 생생하기만 한데,
항상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늘 조용했던 너.

겨울에 들어서니 11월,
네 생일을 일주일 앞두고서
그렇게
그 누구에게도 힘든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
홀로 그 길을 향하는데.
우리가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이별이란 글자에 마침표가 붙은 후였지.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하는지
머릿속은 하얗기만,

그날 그때부터 마음의 한쪽 벽은 허물어지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기에 너무나도 큰 상실감.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머니께서는
매일 창밖을 향하는 눈빛은 깜박임조차 없구나.

오늘도 어머니의 등 위로 흐르는 안타까운 사랑으로
오빠의 마음을 조금 달래 본다지만,
예쁜 내 동생 현주를 향한 그리움은
그렇게 세월과 같이 흐르는구나.

“보고 싶다. 내 사랑하는 동생 현주야!”

하늘나라에선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잘 지내길
오빠가 늘 기도할게.

2019년 4월 중순에



제2부

그리움은 글이 되어
소망을 낳다



아빠가 그리운 날엔...



전재희 | 믿음상

아빠...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날 아빠에게 오랜만에 편지를 써요. 천국에서 예수님과 무얼 하고 지내실지 궁금해요. 찬양 부르는 거 좋아하셨으니 하나님 좋아하시는 찬양을 계속 부르고 계실 것도 같고.

아빠가 갑자기 떠나시던 날 ‘어쨌든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원망 어린 투정을 부렸죠.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온 후 아이들과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 걸려온 동생 은희의 전화.

“언니 빨리 와... 아빠 돌아가셨어...”라며 흐느끼는 목소리 아직도 귓가에 선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는데...

사인은 심장마비. 그렇게 아빠는 엄마와 우리 4남매와 아무

런 헤어짐의 준비 없이 그렇게 우리들 곁을 떠나셨죠. 철이 없던 시절 한없이 무능해 보이는 아빠의 모습에 딸임에도 살가움 없이 늘 무뎠던 모습으로 아빠를 대했던 나.

예수님 잘 믿는 믿음 좋은 사위 보게 되었다며 기뻐하시던 아빠와 달리 초라해 보이는 아빠 손잡고 예식장에 들어가기 왜 이리 불편했는지. 참 나쁜 딸이었어요.

늘 아빠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신 건데 늘 곱지 않은 시선으로 아빠를 바라본 나쁜 딸. 길거리 걸인들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늘 따뜻하게 대접하고 보살펴 준 후 보내시는 공훈함과 온화한 성품을 지니셨던 분.

그런 아빠 딸은 왜 아빠의 좋은 면을 보아 드리지 않고 생활력 없는 무능한 아빠 ‘가족들에게나 잘하시지 왜 저러실까...’ 조롱 섞인 말만 내뱉고.

아빠... 부모님 살아생전에 잘하라는 말은 엄마에게만 해당된다 생각했어요. 못난 딸은 아빠가 돌아가셔도 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떠나시던 날 왜 이리 날씨는 맑고 청명한지 아빠에게 잘못된 일만 떠올리며 가슴 치며 울던 날

들... 그리움이 사무치는 시간들은 제게 없을 줄 알았는데...

아빠...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아빠와 닮은 분만 보아도 가슴 한편이 아려오는 4월입니다. 내일이네요. 5월 1일 아빠가 떠나신 날.

저희들 곁에 계실 땐 못 했던 말,

아빠... 사랑해요. 보고 싶고 그리워요.

시아버지 사랑 나만큼 받은 사람 또 있을까요?



전혜수 | 믿음상

아버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시간 18년.

아버님 천국 가시고 남은 이 땅에서의 18년.

새색시였던 큰며느리 이제 환갑의 나이 되어 아버님을 그리며 며느리로서 아버님 사랑받던 행복했던 시간을 추억합니다.

“성경 보면서 믿으면 그거 진짜지?”

그렇게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아버님.

함께 살던 어느 날 “네 남편 원구는 진국이니 믿고 살아도 된다.” 하시며 아들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으로 내게 힘을 실어주던 아버님. “아들 낳으면 내가 교회 나가마. 네가 약속을 지켰으니 나도 약속을 지켜야지.” 하시며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물세례 받으신 아버님.

어느 날 한 손에 아들 손을 다른 한 손에 제 손을 잡으시고

“아범은 결혼 후 손이 따뜻해졌구나. 그런데 어머 손은 많이 차구나.” 하시며 힘주어 제 손을 잡아주시던 아버님.

발육이 늦은 큰손자 안고 병원 다니는 며느리 안쓰러워 일부러 병원까지 동행해 주시며 고기를 사 먹이시고 “힘내야지.” 토닥여 주신 아버님. 자식이 부모님 생신 챙기는 것 당연한 일이건만 애썼다며 “예쁜 옷 하나 사 입어라.” 노고를 치하에 주시던 아버님.

갑작스런 병으로 힘들어 하시면서도 나중에서야 “큰아들 집에 가고 싶다.” 말씀하셔서 그나마 효도할 기회를 주신 아버님. 통증으로 아파하실 때면 아버님 등 뒤에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리면 “조금 괜찮아졌다.” 하시며 숨을 고르셨던 아버님.

예수 보혈 의지하면 천국 문 열린다는 며느리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예수님 의지하여 죄 사함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면 천국 문 열어주니? 그렇게 하면 되냐.” 하시며 천국 입성을 준비하셨던 아버님.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란 옛말이 내게는 참말이 되게 하신 아버님.

아버님께 다 못 드린 사랑 어머님께 드리며 맘며느리로서 가

정의 화평 이뤄가며 소망 가운데 살다 아버님 뵈러 가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아버님….

2018. 4. 7.
토요일 큰며느리 올림



봐라!! 엄마 참 씩씩하지



정옥경 | 소망상

아들.

거긴 통신 기지국이 없는가 보구나. 그 오랜 시간 한 번도 전화가 없네. 네가 없는 하늘 아래에서 일곱 해를 살았다. 그건, 걸어서 지구를 일곱 바퀴 돌아온 젖은 시간들이었지.

그간의 흘린 눈물을 단 한 방울의 먹물로 만들어 꼭 한마디만 쓴다면

보. 고. 싶. 다.

장난기 많고 참 따뜻했던 내 아들. 네가 가고 없어도 계절은 여전히 찾아오고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있으니 ‘하나님, 내 아들이 없는데 꽃은 왜 피우시나요.’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천사였나 보다. 긴 팔을 둘러 아빠와 누나, 그리고 엄마를 너는 참 능청스레 잘도 안 아주었지. 그건 누굴 닮은 것일까. 정을 표현하는 일에 우린 뻗

뺏하고 어지간히 미숙했는데 정 많고 애교스럽던 그 특별한 재주는 어디서 온 것일까.

네가 떠나고 나서 우린 서로에게 다가가는 법을 몰라 트라이앵글처럼 모로 앉아 각자의 슬픔을 들여다보고만 있었다. 봄별처럼 다가오던 너의 손길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른다.

4월 10일.

오늘은 네가 천국 시민이 된 지 꼭 일곱 해가 되는 날이구나.

하얀 벚꽃 길을 따라 오늘 너의 유택에 다녀왔다. 나비처럼 날리던 하얀 꽃잎들이 얼마나 예뻐는지 몰라. 바람이 많이 불었거든. 평생 갈 줄 알았던 슬픔은 점차 힘을 잃었고 엄마는 예전의 엉뚱하고 씩씩한 기질을 되찾았어. 사소한 일에도 이젠 크게 잘 웃고 입에 맞는 커피를 찾아 먼길을 나서기도 하지.

가정 예배 때마다 우리 가족이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단다. 아마 너도 잘 알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이 찬송을 부를 때면 엄마는 가슴이 막 뛰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날들을 다 마치고 이윽고 내 아들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때 수많은 천사들의 인도를 받으며 햇살보다 더 빛나는 우리 요셉이와 만난다.

회복된 아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너는 얼마나 푸르고 눈부실까. 엄마가 눈물을 닦고 이제 웃을 수 있는 이유란다.

엄마는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너의 엄마로 살 생각이야. 이른 아침이면 야생화가 지천인 생명수 강가에서 물을 길어다 우리 아들의 밥을 짓고, 네 머리맡에 방금 꺾어온 꽃을 놓아주고 싶어.

너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있다 “왈왈왈” 하며 강아지처럼 엄마를 놀래 주겠지.

넌 늘 그랬잖아.

참 보고 싶다. 우리 아들.

엄마 아들로 와주어서 고맙다. 사랑한다.

4월 10일 엄마가

안녕 할아버지



노하진 | 소망상

나 하진이야.

할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신 지 벌써 십 년이란 세월이 흘렀어. 시간 참 빠르지? 처음 할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갔을 때 메모리얼 파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겠다고 다짐했는데, 일 년에 한 번 겨우 오고 서운했지? 그래도 나 할아버지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앞으로 기도도 많이 드릴게. 나중에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사준 붕어빵을 안 먹은 일, 마지막으로 같이 간 가족여행에서 짜증 부리던 내 모습, 언제나 가슴속에 남아 후회가 됐어. 사실은 그 시절 철없던 내가 좀... 아직도 미워.

많이 보고 싶어. 못해 드린 게 참 많은데 항상 돌이켜보면 무언가를 받은 기억들만 많아. 고마워 할아버지. 유년시절 아빠가

없던 나에게는 할아버지가 아빠였어. 할아버지 덕분에 아빠의 빈자리 없이 밝게 자란 거야. 은혜, 사랑 다 보답하지도 못했는데... 언젠가 갚을 날이 와줬으면 좋겠어.

내가 항상 사랑해요. 알고 있지?

P.S

그리고 천국에서까지 나 너무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

항상 까불고 사고뭉치였지만 그래도 이제 좀 괜찮아.

더 열심히 살아서 가족들은 내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사랑해!

2018년 4월 14일 늦은 밤
최고로 멋진 할아버지께 막내 손녀 올림

이 추모의 글이 당신이 계신 천국에 전달되기를 소망하면서...



박경순 | 소망상

이천십년 시월 어느 가슴이 저미도록 마음 아픈 날, 당신은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당신은 떠났지만 당신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법을, 사람을 사랑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법을, 구제나 선교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섬기는 법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법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음을 기억합니다.

교회 성장하는 법도, 전도하는 법도, 축복받는 비결도, 성공하는 비결도 남겨진 가족들에게 세상 살아가는 법도 알려주지 않아 때로는 넘지 못할 파도와 싸우면서 때로는 참지 못할 슬픔으로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당신은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인사처럼 '마땅히 선하고 의로운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에...

당신은 다윗의 유언처럼 당신의 자녀들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와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었기에 8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 당신과 함께했던 수많은 기억들은 점점 희미해져 가지만 당신이 남기고 간 하나님을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이천십팔년 사월, 어느 따스한 봄날.

보고픈 얼굴, 그 이름 석 자가 사무치도록 그리울 때면 당신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당신은 다시 봄꽃을 피우기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당신이 섰던 강단 그 자리에 제가 아직 서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여기 이곳에서 아직 머물고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부모가 여기 이곳에서 아직 기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성도들이 여기 이곳에서 아직 예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땅에 아무런 산업도 남기지 않아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던 것처럼 당신은 저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당

신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오늘 네 이웃을 향해 말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수많은 추억과 기억들은 오늘이 지나면 더 희미해질지라도 당신이 저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당신을 알고 있는 모든 자에게 남기고 간 그 마지막 유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섬길 것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잘 세워 나갈 것을, ‘말과 행실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라’는 그 간절한 유언들을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하렵니다.

오늘도 혼자라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힘겨워 하지만 당신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저의 중보자가 되어줄 것을 확신하기에 오늘도 당신이 계신 푸르른 하늘을 벗 삼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2018년 4월 6일. 당신의 아내가

나의 영원한 아빠



이인선 | 소망상

아빠, 아빠의 하나뿐인 딸 인선이에요.

아빠, 하늘나라에서 우리 잘 지켜보고 있죠?

엄마랑 주형이랑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 하고 있어요. 아빠도 같이 살았더라면 열심히 일하는 딸 볼 수 있을 텐데... 아빠 많이많이 보고 싶다... 벌써 7~8년이 흘렀네... 시간이 무더진 만큼 이렇게 세월도 흘러가나 봐.

아빠가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고, 나와 주형이 잘 되라고 더 돈도 많이 벌고... 뒤늦게나마 깨달은 미운 딸 용서해줘. 꼭 성인 되어서 효도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먼저 가버리는 게 어디 있어.

아빠, 점점 멀어지는 단어지만 평생 마음속에 품고 지낼게요.

아빠! 나 이직해서 인천공항에서 일해. 내가 싱가포르에 있

을 때 꼭 항공 회사에서 일하고 싶었거든.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서비스직에 있었던 환경 때문인지 나랑 주형이도 이런 서비스직이 적성에 맞나 봐! 우리 가족은 다 밝고 씩씩하게 지내니까 사람들 만나면서 일하는 걸 다 잘하나 봐요.

나도 벌써 고3에서 26살이 됐어. 아빠랑 산 19년 인생보다 홀로 살아갈 날이 길다는 게 너무 슬프다. 아빠랑 평생 알콩달콩 지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거기서는 더 밝고 덜 힘들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주형이는 호주에 1년 일하러 갔어. 아빠 있었다면 반대가 심했겠지? 나도 아마 싱가포르 3년 꿈도 못 꿨을 거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서 꼭 아빠 뒤편까지 합쳐서 엄마에게 효도할게!! 꼭 지켜보고 있어! 알았지?

아빠, 너무너무 보고 싶다. 날 예뻐해 주고 사랑해 준 우리 아빠 너무 보고 싶다. 아빠, 난 지금 나보다 한 살 많은 오빠랑 연애하고 있어. 아빠가 있었다면 좋아했으려나? 아빠랑 같은 직종이었던 금형 쪽에서 일한대.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신기했어. 난 아직 어린 티가 나니까 확실히 나이 있는 오빠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지? 예쁘게 사귀고 있을게. 지금 하는 일 열심히 성장하게끔 아빠가 위에서 응

원해 주고 힘 듬뿍듬뿍 주세요.

눈물 많은 우리 엄마 두고 간 아빠도 마음이 편치 않겠지만
주형이랑 내가 옆에서 잘 챙겨줄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 나 운전면허 준비하고 있어. 벌써 두 번이나 떨어졌는데
다음주에 보는 거 꼭 응원해 줘! 붙는다고 꼭! 알겠지? 아빠
나랑 약속했다!

우리 가족 잘 지내는 모습 보니까 좋지? 활기차게 지내야지
아빠도 맘 편히 있을 수 있으니까 더 밝게 지내는 것 같아. 항상
그립고 그리운 우리 아빠. 아빠란 단어가 점점 어색해지겠지만
평생 하나뿐인 나의 아버지니까요! 평생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6년 만에 아빠한테 편지 쓰니 어색하네요. 이런 기회가 되어
서 쓰니까 너무 좋다. 이제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써 볼게요. 거
기서도 건강하고 나 잊지 말고 다시 볼 때까지 항상 행복하자,
우리 아빠. 또 조만간 아빠 보러 갈게요. 사랑합니다! 각자 자리
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 꼭 봐주세요!

하나뿐인 딸이자 영원한 나의 아빠의 딸이 되고 싶은 인선 올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박미선 | 화평상

너무도 보고 싶은 아들 효석아.

너를 보러 오는 기도원 길목에 벚꽃이 참 아름다워서 눈물이 난다. 이토록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보지 못하는 아쉬움, 그리움이 밀려오는구나. 효석이는 태어나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가족과 집안의 자랑이었던 것 알지? 엄마 아빠가 제대로 못 해 준 것이 너무도 많은데 울 아들은 늘 행복하게 친구들과 선생님의 사랑을 받으며 잘 살아줘서 고맙다.

엄마 아빠가 너의 마음에 상처 준 것이 많아서 미안하고 안타깝구나. 군대에 가야 되는데 교회 행사 준비로 군대도 연기하고 대학교도 빠지며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너의 할 일에 충성스럽게 마치고 간 효석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믿기지 않았었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은 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셔서 지금 너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해주셨어.

효석이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내게 보여 주셨지.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환하고 기쁨에 찬 얼굴로 날아가듯 뛰어가서 엄마는 효석이가 살아난 줄 알았어. 기적이 일어났나? 그런데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효석이의 영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슬픔을 이기고 편하게 보낼 수 있었다.

천국에서도 기쁨의 날들을 보내고 있을 아들이!

너의 친구들이 해마다 찾아오고 너를 기억해 주는 고마움을 엄마는 기도밖에 해줄 수가 없어. 너의 친구를 보면 너를 보는 듯 기쁘기도 하지만 마음이 아프기도 하단다. 너의 학교 친구, 교회 친구, 동네 친구를 모두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이 땅에서도 강건하게 살아가기를 엄마는 기도하고 있어.

효석이가 이처럼 이 땅을 떠나 천국으로 가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효석을 다시 만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어. 그래도 매일 아

침잠에서 깨면 너를 생각하고, 운전하다가도 걸어가다가도 네가 보고 싶을 때가 많아서 평평 울기도 한단다.

아빠도 효석이를 많이 보고 싶어 하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아이라 생각해. 비록 여기서 지낸 시간은 짧지만 참으로 뜨겁고 열심히 살아온 우리 아들, 엄마의 마음속엔 효석이가 최고야!

엄마는 주님이 주신 이곳의 삶을 마치는 날에 너를 만나러 갈 거야. 울 아들이 엄마를 반가이 맞이해 줄 거지? 그곳에서 우리 영원히 함께 살자!

사랑하고 보고 싶은 아들이야...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어머니!



김명춘 | 화평상

2012년 12월 소천하신 故 윤정한 권사님을 기리며

영원한 안식과 아픔과 다툼 괴로움이 없는 천국에서 꽃향기 맡으며 편히 계실 어머니!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봄꽃이 피어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고향 마을에도 진달래, 목련, 꽃다지 등등이 예쁘게 피었고 파릇한 새싹을 뽑내고 있어요.

허리 구부려 씨앗을 뿌리는 농부들의 모습에서 엄마를 봤습니다. 조금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시던 엄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모두 가난했었지요. 감자와 수제비가 매일의 주식이었으며 중·고등학교 시절 도시락은커녕 수업료가 밀려 재촉 받으며 그럴 때마다 학교 안 간다고 신경질을 부린 철없던 시절도 생각납니다.

6.25사변 끝 무렵에 아버지와 두 분 작은아버지께서 인민군에 의해 잡혀가시고 생사를 모르고 산 지 70년입니다. 금방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시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시며 우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산가족이 되어 남과 북에서 서로 그리워하며 사신 그때부터 엄마는 우리 집의 가장이 되어 집안을 일으켜야겠다는 생각밖에는 없으셨습니다. 누구도 원망할 여유 없이 마음고생 몸고생하시며 악착같이 버티며 살아남으신 엄마. 봄에는 누에 키우고 동네 허드렛일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근면 성실히 온갖 일을 다 하셨지요. 엄마의 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동네 모든 어르신들이 인정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잘살 거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엄마, 오래전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대한적십자사에 이산가족 신청한 거 제가 얘기했지요? 그럼에도 엄마는 기다리시지 못하고 천국을 가셨지요. 그 옛날 엄마께서는 작은아버지 두 분을 많이 생각하시며 아까운 사람들이 끌려가셨노라 그리워하셨습니다. 총각의 몸으로 인민군에 잡혀 억지로 끌려가신 두 분 도련님을 잊지 못하셨어요. 성격이 곧고 바른 인성을 지닌 분들이어서 공산 정치에 협조하며 사시기 힘들실 거란 얘기도 엄마를 통해 들었을 때 저는 자랑스러웠

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마음에 없는 협조를 하며 사시느라 얼마나 힘들셨을까? 북한에서는 무슨 일을 하시며 사셨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작은아버지라도 만날 수 있겠지 생각하며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작은아버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연세가 있으니까요.

혹 아버지께서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지금쯤은 두 분이 나란히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을까 하는 소망을 담아봅니다. 너무 세월이 많이 흘러 알아보시거나 하셨을까요? 궁금해지네요. 제법 자란 달래와 냉이, 부추를 한 바구니 뜯었습니다. 허리 아프고 팔도 아프고... ‘엄마는 이렇게 힘든 일을 매년 정성을 다해 다듬고 씻고 말려서 보내셨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아려왔어요. 어디 봄뿐인가요? 계절마다 감자며 고춧가루, 들기름과 참깨, 내가 좋아한다고 머위순 삶아서 보내 주시고 가을엔 쌀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과 나누어 먹으며 감사의 인사를 하곤 합니다. 엄마 소천하시고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고 살아 계신 동안 잘 해드리지 못한 것만 생각이 납니다.

구석구석 엄마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는데 살아 계실 때는

무심히 지나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점이 뉘우쳐집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이해하며 격려를 해드렸으면 엄마가 흡족해 하는 모습을 오래 볼 수 있었을 텐데 나약하고 이기적인 인간인지라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엄마 지금이라도 용서를 빌게요. 아니 이렇게 편지로 용서를 빌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의 옳지 못했던 행동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서 마음 편히 계시길 늘 기도합니다.

4월 7일 주말에 단감나무와 매실 몇 그루를 심고 왔어요. 나무 심는 틈틈이 달래와 부추를 뜯으며 추억에 잠겨봅니다. 엄마가 심은 감나무는 열매가 잘 달리지 않고 병들었어요. 오래되어 그런가 봅니다. 엄마의 추억과 애환이 담겨 있어서 벨 수가 없어 옆에 심었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심은 나무라 기대가 큼니다.

보고픈 엄마!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엄마의 자손들이 수확하며 할머니를 잊지 않고 기리며 그리워하겠지요? 할머니의 정취를 생각하며 즐겁게 살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엄마의 손길이 가득한 곳이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제가 갈고닦고 소중히 간직하고 오래도록 보관하도록 할게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엄마를 다시 만난다는 소망은 참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때까지 천국에서 우리들을 기다려 주세요.

행복한 만남을 기대하며 영원토록 언제까지 엄마를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18년 4월 20일

엄마의 둘째 딸 명춘 드림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사랑하는 당신에게



최경재 | 화평상

사랑하는 여보!

오늘도 당신이 그리워서 또 찾아왔어요. 당신 생전에 사랑하던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또 사위 며느리들 곁을 한마디 유언도 없이 떠나간 지도 어언 6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구려. 그리고 이 지아비도 80초반의 노인이 되어버렸다고.

사랑하는 여보!

지금도 이웃의 여러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만나면 먼 옛날 우리 교회 상징이었던 빨간 가방 들고 구역장의 사명으로 하나님 전도에 열성을 다하던 남상금 권사님의 추억 어린 이야기를 할 때에는 또 나의 마음을 울리곤 한다고.

사랑하는 여보!

사랑하던 당신의 자녀들 모두 건강하게 각자의 삶을 살고 있

고 또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도 학교 졸업하고 나름대로 저들의 생활을 하고 있소. 당신이 하늘나라로 소천하기까지도 유모차 태우고 동네 놀이터와 어린이방으로 데리고 다니던 막내 손녀도 이제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다오.

사랑하는 여보!

세월은 흐르는 유수와 같다 하던 속담대로 이 지아비도 이젠 육신과 마음마저 늙어서 모든 의욕이 옛날과 같지 않아요. 여보,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서 내 생명이 다하는 날 고이 잠자는 사이에 사랑하는 당신 곁으로 보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오.

이제 생각을 하면 지난날 병마에 시달리던 가엾은 당신을 내 목숨 불사르고라도 살리지 못한 이 못난 지아비가 한없이 미우며 오늘까지 죄인의 심정으로 살고 있다오.

여보! 정말로 미안해. 용서하여 주시구려.

그리고 여보!

우리 처음 만나 인연을 맺어 결혼하고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오래오래 함께 살자고 했던 맹세를 저버리고 먼저 하늘나라

로 가버리신 당신이 어떤 때에는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는 당신이 있다는 믿음에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 시기를 이 지아비는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누리시다.

안녕...

늘 당신을 그리워하는 지아비가

아버지



김현철 | 화평상

아버지!

당신을 향한 제 마음이 너무나 갈급하여 사막의 모래와 같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눈은 자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고 당신의 말 씀은 제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시며 순전한 욕과 같이 경주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은 그렇지 못하여 당신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죄만 행하였기에 더욱더 가슴이 메어집니다.

지금 제가 당신의 뜨거운 입술에 입 맞추며 호흡이 정지된 당신의 침묵 안에 들어가 당신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굳어진 심장을 포옹하고, 당신의 투박하고 거친 손을 힘껏 잡으며, 감히 당신의 거룩한 사랑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제 눈물이 시냇물 되어 바다가 되신 당신의 얼굴로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당신의 온몸을 쓰다듬으며 당신을 느낍니다. 다시 한 번 당신에게 입 맞춥니다. 당신으로 인해 해일처럼 밀려오는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아무 낙이 없는 자같이 저도 죽음의 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주검으로 인해 죄악으로 죽어버린 제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당신의 얼굴 안에서 천국의 빛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실 당신의 영생 복락을 저 또한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빠야!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오예은 | 화평상

제일 사랑하는 우리 잘생긴 오빠에게.

오빠야! 안녕... 나 오빠 동생 예은이야.

오빠야!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오빠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거짓말인 줄 알았어. 그래서 많이 울었지... 하지만 오빠가 천국에 갔다고 하니 좀 괜찮아졌어.

오빠가 웃고 떠들고 뛰어다니는 모습 보고 싶네! 나중에 내가 천국 가서 오빠 만나면 즐겁게 놀자. 그리고 오빠가 밝고 건강한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내 꿈에 나타나 줘. 내가 오빠랑 12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 이 많은 일 중에 좋은 추억만 생각해! 오빠야.

그때 기억나? 오빠 졸업식 날... 상 받는 사람 소개할 때 우리

오빠는 왜 안 나오지 하는데 오빠가 갑자기 어딘가를 가서 ‘어디 가지?’ 했는데 상 받으러 간 거였잖아. 또 우리 강원도 갔을 때도 생각한다. 근데 오빠가 천국으로 간 날, 오빠 생일이었잖아!(음력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빠 생일 파티 해주려고 오빠 생일날 부르셨나 봐.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신나는 생일파티를 했겠네... 오빠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5개월 때 갑작스러운 장애가 찾아와 무려 21년 동안 매일 쓰디쓴 약을 먹고 말을 못하는 등등의 어려움, 불편함이 있었잖아!

21년 동안 고생했어! 오빠가 비록 장애가 있었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동생 예은이와 잘 놀아주고 귀엽고 잘생긴 오빠였어! 오빠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였을 것 같아... 오빠로 인해 교회도 나가게 되었고...!! 이번 일로 하나님을 좀 더 믿게 됐어! 오빠야! 우리 집에 태어나 줘서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천국에서 잘 있어!

2018. 4. 28

예은이가

어느 날 엄마에게 찾아온 나의 아들 명환아!



김순옥 | 화평상

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웃음을 자아내게 만들고 기쁨과 즐거움을 채워 주곤 하였지. 지난해 단풍이 곱게 물든 가을날에도 생각이 나더구나.

명환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을 거야. 미술 준비물이 단풍잎 모아 오기였지. 우리 가족 모두는 토요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경기도 송추까지 가서 예쁜 단풍잎도 모으고 주변에 사슴농장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지.

그때에 엄마가 아빠에게 했던 말이 생각나네.

40대 중반 나이에 단풍잎 모으는 남자는 흔치 않을 거라고….

“당신은 명환이 때문에 단풍잎도 모으는 참 행복한 남자야.”
하고 웃던 일이.

그러한 추억의 시간들을 간직하고 있기에 지난해 가을도 아름답게 바라보며 주님께 무언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지.

주님! 아름다운 가을날 그냥 보내지 않고 주님의 자녀들 차곡차곡 예쁘고 아름다운 추억들을 남겨놓게 하옵소서. 주님이 지으신 세상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시간 속에는 명환이도 함께함을 느끼곤 하였지. 또 아빠의 현관 문소리에 맞추어 15살 명환이는 장롱 안에 숨고 아빠는 다 알면서도 막 찾는 시늉을 하며 속아주면 아빠가 정말 속은 줄 알고 “와!” 하고 나오며 어린아이같이 신나 하던 모습! 아빠와 명환이는 환상의 콤비였지.

명환아!!

모습은 아니 보여도 명환이는 우리 가족과 함께하지? 언제나 우리 가족이 명환이와 함께하는 것 명환이도 알고 있지. 그래도 그럼에도 명환이를 만질 수도 안을 수도 없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도 크게 밀물처럼 몰아올 때면 주님께 묻곤 하지.

‘이 또한 저의 욕심인가요. 주님! 우리 가족이 명환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명환이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고통과 아픔이 없는 천국으로 데려가셨나요.’ 하고 생각이 머물곤 하지.

명환이도 알고 있겠지만 엄마가 있는 이 땅은 누구나 영원히 머물 수 없는 곳이야. 천국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는 순례의 길이야. 이 순례의 여정을 언제쯤 마치고 명환이를 만날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시겠지.

엄마가 이 땅에서 주님께 부여받은 시간들을 하루하루 소홀함 없이 최선을 위해 살아가고 있단다.

내 아들 명환아!

울 아들 만남을 위해 천국에 소망을 품고 엄마는 오늘도 순례의 행진, 또 행진이란다.

오늘은 많이많이 보고 싶어. 꿈속에서 만나자.

내 사랑하는 아들 명환아!!

어머님께 보냅니다



노상범 | 화평상

지난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린 만큼 유난스레 봄꽃의 향기가 짙은 계절입니다.

봄에 피는 꽃에 사랑이 각별하셨던 어머니를, 지난해 유월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에 모시고 나서 한동안 망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슬픔 가운데에도 평소 어머니가 원하시던 곳에서 영면하시게 된 것을 생각하니 그나마 작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지요.

오 년 전인가요? 구십이 다 된 연세에 수술을 받으시고 고향 생활을 청산하셨던 어머니를 요양병원이 아닌 아들 집에서 모시고자 슬하에 육 남매가 모두 모여 회의를 하였지요. 외국에 거주하던 세 명의 형과 누나들이 자청하여 삼 개월씩 돌아가며 모시기로 결정한 뒤 어머니의 서울살이는 시작되었네요.

그 이후 사 년여를 육 남매와 돌아가면서 생활하신 그 기간

에 어머니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어요. 즈음의 자식들이 대부분 그러듯 형제간의 서운함과 불통을 애써 어머니와의 소통으로 만드시고, 고향 생활로 많이 나누지 못한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꽃을 피우는 좋은 시간으로 승화시키셨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크게 결심하셨던 일은 어머니의 사후 영면의 장소를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로 결정하신 일입니다. 모두 구비되어 있는 선산의 아버님 옆자리를 고집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손들의 편의를 위해 대세를 따르시던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부모의 사랑이 과연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일로 우리는 어머니와 이별을 조금이나마 덜 서운한 감정으로 감내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그곳은 편안하십니까?

유지대로 지난 윤월에 아버님을 같이 모시고 우리 사형제가 어머니 밑에 단으로 나란히 자리를 잡았으니, 목회자인 큰누이 내외도 당연히 이곳으로 올 것이고 보면, 언젠가는 우리 일가족 모두가 들림이 있는 날에는 이곳에서 만나게 되겠네요. 배달음식의 그릇도 설거지를 해서 보내시고 어려운 자를 더욱 힘써 도와주시던 어머니의 교훈을 되살려 저희도 그때까지 열심히 살

아내고 남을 도우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지키렵니다.

계절은 바뀌어도 어머니는 항상 메모리얼 파크에 계시니 우리가 든든합니다. 그곳에서 편히 우리를 내려다보소서.
사랑합니다.



엄마



신혜철 | 사랑상

엄마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저하고 둘이 한 점심 식사를 끝낸 식탁에서 유난히 초롱하셨던 눈빛으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막내야, 나 죽거든 절대 무덤 쓰지 마라. 내 한세상 소원 없이 살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단다. 비록 늙어 병 때문에 너희들 고생도 시켰고 나름 너희 형제들 속도 끓이게 했지만, 엄마 또한 그 시간 동안 너희들에게 말 못 할 서운함도 많이 느낀 게 사실이다. 엄마가 지내온 세월을 죽 돌이켜 생각해 보니 너무 가족에 얽매였었고, 맘며느리로 살아온 무게가 무겁고 힘들었단다. 그러니 이제 엄마 죽으면 묻지도 말고 봉인해서 납골당도 쓰지 마라. 화장해서 뼈 남으면 너희 삼 형제 한 놈도 빠짐없이 모여 흰 장갑 끼고 산 높은 곳에서 훨훨 뿌려라. 공평하게 훨훨 뿌려라. 그래서 내 죽어 바람이 되고 비가 되어 내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갈 수 있고 자유롭게 말이다. 막내야. 형제들 중엔 니가 꼭 내 말 들어줄 것 같아 내가 니한테만 이 말 남긴다.”

엄마가 병마와 싸우던 그 무더운 작년 칠월 말의 여름날, 병원에서 의사는 “할머니, 이제 퇴원하셔서 통원 치료하시면 되시겠어요.” 말했고 그 말 들으시곤 엄만 내 손 꼭 잡으시며 “막내야, 내 이제 안 아프다. 니가 고맙다. 너희들이 날 살렸다.” 하며 환하게 웃으셨는데….

퇴원하신 지 이십 여일 만에 다시 중환자실로 입원하셔서서는 그리곤 엄마. 엄마 보름도 못 지내시고, 말씀 한마디 못 남기시고 그 따뜻한 눈길 한번 안 주시고 떠나셨네요.

엄마, 엄마도 알지?

엄마 돌아가신 바로 다음 날 우리 장모님도 돌아가신 거… 아마 아실 거야. 그러리라 믿어. 엄마 빈소 꾸며 놓고 장례 치르면서 장모님 장례까지 정신없이 이리저리 다니다 문득 정신 차려보니 엄마의 운구가 화장장 화로 입구 앞에 있더라고요. 엄마도 들었지? 내가 유리창 부서질 듯 두드리며 부르짖던 목소리. “엄마, 불 들어가! 얼른 나와 엄마 나와 얼른 나와!” 하는….

엄마, 약속 못 지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죽은 후에 훨훨 날아가고 싶으니까 무덤도 쓰지 말고 봉안도 말라 하셨지만 그래서 산에다 뿌려 달라 신신당부 나더러 약속 지키라 하셨지만 약속 못 지켜서 정말 미안해. 나 죽을 만큼 고민하고 또 생각했어. 만일 엄마 뿌린 산기슭에 비라도 오면 어떡해? 찬바람 불어 추우면 어떡해? 엄마 비 젖고 추워서 동동거리며 나무뿌리에 걸터앉아 울고 계시면 어떡해? 그러면 나 어떡해? 그러면 나는 어떡하냐고.

그래서 엄마, 엄말 이곳에 모셨어. 약속 안 지키고….

엄마도 봤지?

이곳은 늘 햇살이 따사롭기도 하지만 비 오면 창밖 풍경이 너무 곱더라고. 예쁜 비안개가 옛날 젊은 시절의 엄마가 부르시던 노래처럼 구슬프게 눈물 나게 하기도 하고. 엄마가 것처럼 소중히 간직해 오시던 주님 사랑도 무궁할 거야. 엄마의 소중한 신앙 이곳에선 더욱 빛나고 주님 품 안에서 따사로울 거야.

키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돌아가신 이젠 버팀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주님의 품 안에서 영생 평안하소서. 어머니.

아버지 아리아



강기원 | 소망상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늘 펼쳐보시던 성경책 위 돋보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짙고 다니시던 지팡이가 아직도 현관 앞에 세워져 있는데 아버지가 저희 곁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사방에서 봄날의 꽃들이 아름다운 폭죽을 향기롭게 터뜨리던 2018년 5월 21일 새벽, 당신이 떠나시던 그날보다 저는 그 전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전화를 드리거나 뵈러 갈 때마다 한 번도 아프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적 없이 (깊은 병중에 계실 때에도) 늘 “나는 괜찮다. 너희는 어떠니? 고맙다.” 말씀하시던 아버지가 그날따라 두 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셨지요.

“고맙다, 애야 고맙다. 네가 보고 싶었다. 많이...”

무심하게도 저는 그 유별난 말씀에 “아이, 아버지는 그저께

보셨는데 또 뭐가 보고 싶어요?” 웃고 말았는데 그게 마지막 말
씀이 될 줄이야.

나중에 새어머니께 들으니 그날 밤 아버지는 손자와 증손자
에게도 전화로 일일이 인사를 하시고 어머니께도 새삼스레 사
랑한다, 고맙다 하셨다니 당신은 이미 이 세상과의 하직을 예감
하신 듯합니다. 그때의 당신 마음이 어땠을지 저도 그날이 닥쳐
봐야 알 수 있겠지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성정은 참으로 멋진 로맨티
스트!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셨고 노래와 춤에 능하셨고 그러면
서도 항상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셨던 아버지. 아침 출근하시
기 전, 오페라 아리아 한 곡조를 유려하게 뽑으시는가 하면, 퇴
근 후에는 밤늦게까지 음악 감상을 하시곤 했지요. 제 기억에
어린 시절 자장가를 불러 주는 이도 엄마가 아닌 아버지셨어요.

제가 대학 2학년 때, 어느 날 영화 ‘스잔나’를 보시고서는 영
화 OST ‘One summer night’가 너무 좋다면서 악보를 구해 오셨
던 거 기억하시지요? 함께 듀엣으로 불러보자 하시며 제 기타
반주에 맞춰 열심히 연습하시던 일. 이 노래로 아버지와 저는

학교 메이데이 축제에 나가서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지요. 이런 아버지의 재능과 끼를 이어받아 언니는 피아노 잘 치는 전도사로, 둘째인 저는 시인으로, 외아들 남동생은 건축가로, 막내는 바이올리니스트로 키워주신 아버지. 지금쯤 먼저 가신 엄마를 만나 예전처럼 로맨틱한 탱고를 추고 계실 것만 같은 아버지. 그곳에서도 ‘거룩한 성’(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곁에 섰더니)을 성악가 못지않은 솜씨로 부르시어 천사들을 즐겁게 해주실 것만 같은 아버지.

생시의 체면 많고 깔끔하신 성품 그대로, 늘 기도하시던 바대로 천수를 누리신 후 깨끗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으셨던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물려주신 믿음의 귀한 유산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늘나라로 먼저 가신 아버지께



박종호 | 소망상

아버지 저예요. 큰아들 종호.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지가 벌써 4년하고도 반년이 지났네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식들이 그러하듯 저도 아버지께 못해드린 기억만 떠오르는 불효자인지라 이따금 가슴이 저려옵니다.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떠나시기 전 저희 동네 병원에 입원하시고, 통원치료 받으시면서 함께 드셨던 갈비탕 한 그릇, 기억하시죠? 그 갈비탕 한 그릇을 비우고 아버지를 배웅하며, 지하철 승강장으로 들어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아버지의 걸어가시는 마지막 모습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요즘도 그 식당과 지하철 승강장을 지날 때면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가슴이 저리고 눈앞은 어느새 흐려짐을 반복합니다.

아버지,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살아 계실 때 섬기기 다했어야 할 자식이거늘, 늘 먼발치에서만 아버지를 느끼고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4남매와 어머니께 언제나 무뚝뚝하시고, 엄하시기만 했다고 느끼며 감사보다는 불만으로 사춘기를 보내며,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은 두 아들의 아빠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 되면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짊어지고 살아가셨을 무거운 짐과 아버지의 체온, 따뜻함,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셨던 첫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군 입대하던 날 아침! 아무 말도 없으시다가 논산에서 헤어지기 바로 전에 아무렇지 않은 듯 “건강하게 잘 다녀와라!” 한 말씀만 던지시 던지셨죠. 그리고는 연병장으로 들어가는 저를 뒤로하고 한 걸음 씩, 한 걸음 씩, 무거운 듯한 발걸음을 옮기시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는 집에 도착해서 이불을 쓰시고 밤새 많이도 우셨다는 이야기를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눈물이 아버지께서 진심을 담아 보이신 첫 번

째 눈물이며, 그 눈물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아버지의 첫 번째 선물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인 제가 감히 측정하고 의심했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년 전 그렇게도 미워하고 싫어했던 교회를 아버지 스스로 다니시고 찬송을 부르시고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며, 장로 직분으로 교회에 봉사하시는 아버지를 뵈고 제 스스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가끔은 저에게도 은혜의 잔소리를 하셨죠? “큰아들도 가끔 교회 좀 가라.” 하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사랑했고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를 제 마음속 깊숙이, 소중히 간직합니다. 제 휴대폰 바탕화면과 지갑 속 사진은 4년 반 동안 변하지 않고 아버지와 어머니 사진입니다. 이제야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게 되어 죄송한 마음뿐이지만, 이제라도 아버지의 큰 사랑과 마음을 알기에 휴대전화와 지갑 속에 소중히 담으려 합니다.

몇 자의 글을 쓰면서 또다시 눈시울을 붉히게 되네요. 그러나 슬퍼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하는 사랑의 눈물인 듯하여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아버지 자주 찾아뵙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큰아들 종호가 처음으로 아버지께 올리는 이 글이 소중히 잘 전달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 여행이 되어버린 6년 전 제주도에서 해맑게 즐거워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추억하며, 사랑으로 저희 가족과 함께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 땅에서 저의 본분을 다하고, 훗날 아버지를 뵙게 되면 종호 힘껏 안아주세요. 아버지께 바라는 단 하나입니다. 그뿐입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한 나의 사랑 나의 아버지.

천국으로 보내는 편지



백재심 | 소망상

여보, 잘 있었어!

내가 잘 있으면 당신도 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 항상 아이들과 잘 있어 보려 노력하고 그동안 많은 일을 겪으면서 잘 지내왔어. 당신이랑 이별한 지도 벌써 3년이 되어가는구나.

당신 그 먼 곳으로 보내고 하루하루가 지나가긴 하더구나. 하루 24시간이 얼마나 길었던지... 지금은 하루하루가 잘 가는데 그땐 왜 그리 가지 않았는지...

사랑하는, 아니 너무너무 사랑했던 여보.

당신 없인 못 살 줄 알았는데 아이들 보면서 살아지더구나. 당신은 빨리 떠났지만 남들 80 평생 살았던 거 다 살고 갔다고 들 하더라. 그렇게 부지런히 앞만 보고 살아왔었으니까. 그곳에선 그렇게 너무 부지런하지 마. 적당히 하면서 잘 있어야 돼. 비록 당신을 일찍 보냈지만 난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 내 사랑과

결혼한 거. 뭐든지 열심히 하는 정말 멋진 사람과 살아 본 것에 대해….

수연이 성현이 잘 자라고 있고 당신 쪽 빼닮은 국현이 너무 멋지게 잘 자라고 있어.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 식탁 앞에 앉아 있으라면서 발을 내밀어. 주물러 달라고. 어쩔 그렇게 예쁜지. 발톱까지 닳은 거 알아! 당신 호스피스 있을 때 그렇게 아파도 발바닥 만져주면 잠들곤 했었지. 당신이 사랑하는 아이들 잘 키울게. 당신 보물들이 있어서 고마워요.

결혼하는 날 아침 일어나서 이런 생각을 했지. ‘오늘부터 오빠랑 같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엇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여보!

당신과의 모든 것을 가슴 한쪽에 묻고 정말 아름다운 추억으로 담아 놓으니까 이제 좀 살아지더라. 당신 보내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번만 봤으면 했는데 이젠 그게 안 된다는 거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런 생각은 잊어 보려 해.

여보!

서로 다른 곳이지만 우리 잘 지내다가 꼭 만나서 안아주자.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한다고 했던 거 약속 지켜 줄게.

사랑해요. 내 사랑 전재완.

영원히 사랑합니다.

당신의 반쪽이 천국에 있는 당신에게 보내드립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



조혜경 | 믿음상

두 분 계신 동산에 올해도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어요.

언제까지 옆에 계실 것 같던 두 분이 이제는 찾아봐어도 손 한번 잡아 드릴 수도, 물 한 모금 떠 드릴 수도 없이 사진 속에서만 웃고 계시네요. 그래도 두 분 계시는 곳에 가면 잔잔히 흐르는 찬송과 철 따라 피고 지는 꽃들 속에서 편히 계실 거란 생각에 제 마음도 편해진답니다.

엄마 옆에는 신기하게도 엄마와 태어나신 해도 같고, 천국도 비슷한 시기에 가신 권사님이 모셔졌더라고요. 그런데 공연히 울 엄마에게 친구가 한 분 생기신 것 같아 든든해지는 거 있지요?

추모관 입구 돌길을 걸을 땐 엄마 먼저 보내시고 쓸쓸한 모습으로 뚜벅뚜벅 그 길을 걸으시던 아버지가 저만큼 서 계신 것

같고, 벚꽃 잎이 날릴 때나 국화 화분에 각색의 국화꽃이 만발할 때는 유난히 꽃을 좋아하시던 엄마가 꽃 속에서 웃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엄마, 요즘 저는 거울 앞에서 문득 놀랄 때가 있어요. 울 엄마가 거울 속에 계신 것 같아 다시 들여다보면 이제는 희끗희끗하게 머리에 서리가 내린 초로의 딸이 있어요. 그럴 땐 지금 내 나이 때 엄마 모습을 그려보곤 해요.

그때 엄마도 나처럼 내리는 벚꽃 비에 가슴이 설레고, 부는 가을바람엔 무단히 서러웠나요? 그때 엄마도 나처럼 가신 외할머니 모습을 거울 속에서 보고 가슴 한쪽이 시리셨나요?

요즘은 두 분 뵙고 올 때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이 저희들 둥지를 틀고 제가 할 일 다 마치면 천국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엄마 아버지 뵈게요.’라고 기도드리곤 해요. 그게 언제일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다가 두 분 곁으로 갈게요.

그때까지 평안히 계세요.

2019년 봄날에 큰딸 혜경 올림

미소 천사 우리 오빠에게



오예은 | 믿음상

하나님이 보내신 미소 천사 우리 오빠.

오빠야. 안녕? 나 오빠 동생 예은이야! 오빠가 천국 간 지 벌써 1년이네….

세월 참 빠르다….

난 오빠가 천국 갈 때 119 오고 그런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 그 기억만 해도, 오빠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눈물이 벅차 올라.

우리 집에 119가 왔을 때 난 내 방에 들어가서 옷장 속에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했어. 하나님! 제발 제발 우리 오빠 아무 이상 없게 해달라고. 눈물이란 눈물은 다 흘리며 기도했지. 오빠는 병원으로 가고 거실을 나와 보니 더 눈물이 나더라.

난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어. 아니, 거짓말이길 바랐고 꿈이길 바랐어.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꿈에서 깨지 않더라.

난 정말 너무너무 슬펐어... 그때 당시 5학년밖에 되지 않았던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보낸다는 건 나에게 가장 큰 슬픔이었어. 내 나이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었어. 그러니까 오빠한테 미안한 생각밖에 안 들더라.

난 아직도 밤에 자다 오빠 생각이 나서 울어. 오빠의 빈자리가 너무 많이 느껴져... 오빠 장례식 끝나고 집에 왔을 때, 오빠 입히려고 말리고 있던 바지, 오빠 가방, 오빠 소지품은 다 있는데 오빠는 없더라.

내가 춤출 때도 봐주던 사람이 오빠였고 심심할 때 놀아주던 사람도 오빠였어. 난 여행 갔을 때도 ‘아, 오빠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 텔레비전 볼 때도 ‘아, 오빠가 이 프로그램 진짜 좋아했는데...’ 먹을 때도 ‘오빠가 이 음식 좋아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 나에게 조금의 시간이 더 주어졌어도 오빠한테 더 잘해 줄 건데...

오빠야, 천국에서 잘 있지?

오빠야, 내 꿈에도 놀러와 줘. 항상 열려 있어.

오빠랑 웃고 장난치고 놀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우리 오빠 웃는 모습 참 예뻐했는데... 오빠가 장애가 있었으니까

맨날 약 먹고... 이런 것도 많이 지겹고 힘들었을 거야. 수고했어, 오빠야! 이제는 그땐 짜증만 났던 오빠의 울음소리, 짜증내는 소리조차 그리워지네.

오빠야! 우리 가족, 이모네 가족,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다가 오빠한테 갈 거야!

사랑해. 예은이가



우리 곧 다시 만나요



김에스더 | 믿음상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노란 산수유 꽃이 만개한 봄기운 넘치는 곳으로 꽃놀이 여행 함께 가자고 했던 4월이 훌쩍 지나 어느새 파릇파릇한 나뭇잎들이 인사하는 싱그러운 5월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사랑하는 엄마! 하나님께서 그 곳 천국에서 오랜만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반갑게 만나고 주님도 뵈고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꽃구경도 하며 천국 여행 잘 하고 있고 잘 지내고 있나요? 엄마가 사랑하는 딸 에스더는 잘 지내고 있어요.

한동안 준비되지 않은 채 갑작스런 엄마와의 이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크기와 무게로 내 마음을 억누르고 슬픔이 폭풍우처럼 휘몰아쳤고, 엄마에게 못다 한 지난날들을 후회하며 씻을 수 없는 죄책감으로 힘든 나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딸! 엄마는 잘 있으니 슬퍼하지 말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언제나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렴!’이라고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상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엄마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엄마를 심히 사랑하심에 주님이 보시기에 엄마가 더 좋은 곳에 있기 위하심이며 엄마가 슬픔도 아픔도 없는 천국에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니 내 마음속의 평안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헤어짐은 잠시일 뿐 다시 만나는 그날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엄마가 남기고 간 뜻을 되새기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문득문득 집으로 오는 길에 만개한 벚꽃과 아파트 앞 화단에 피기 시작하는 철쭉꽃, 향긋한 라일락 향기가 미소 짓게 할 때 마다 소녀같이 좋아했을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면 “사랑하는 우리 딸! 보고 싶었던 우리 딸!” 하며 두 팔 벌려 따뜻하게 반겨주었던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선해서 불쑥불쑥 새어 나오는 울음을 멈출 길 없지만 그만큼 엄마의 끝없는 사랑을 다시금 느끼고 엄마가 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해요.

엄마….

엄마가 걸어왔을 고단하고 힘들고 외로웠던 시간들… 엄마와 함께해 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했고 엄마가 나에게 베풀었던 조건 없는 사랑… 나도 엄마가 사랑하는 손녀딸 희서에게 똑같이 베풀다가 내가 엄마를 다시 만나는 그때에는 내가 엄마한테 딸 노릇 툭툭히 잘할게!

뿔뿔이 흩어져 있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단단한 가족으로 변화시켜 준 엄마의 기도 잊지 않고 아빠, 룯 언니 그리고 나. 서로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나 하나의 완전체가 될 때까지 잘 지낼게. 엄마 잠시만 안녕.

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엄마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 맘껏 하며 우리 엄마 꽃길만 걸어요.

그 누구보다 엄마를 제일 사랑해. 우리 곧 다시 만나요.

사랑하는 우리 딸 미경에게



김광수 | 믿음상

미경아!

네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언 열두 해가 지났구나.

부모는 산에다 모시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데 그 말이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네가 보고 싶어 울다가도 우리 가슴에 잠들어 있다는 생각이 나면 마음에 위로를 받는단다. 하지만 태어나 23년을 함께 생활하다가 훌쩍 우리 곁을 떠나 천국으로 간 네가 지금도 많이 보고 싶다. 자라면서 예쁜 짓도 많이 하고 효도 또한 잘했던 네가 너무 그립구나. 곁에 있을 때 더 잘 해주지 못한 게 몹시 마음이 아프다.

사랑하는 내 딸 미경아! 보고 싶구나.

네가 살아 있어서 멀리라도 있다면 당장에 달려가 얼싸안고 싶구나. 하지만 이제 너를 볼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기에 아빠, 엄마, 언니 우리 모두는 열심히

믿음 생활 하고 있단다.

네가 천국으로 떠나기 전 남기고 간 글에 예수 잘 믿어서 우리 가족 모두 천국에서 만나자고 한 당부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단다. 아빠도 엄마도 언니도 형부도 그리고 네가 보지 못했던 조카들 고은이, 다은이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성경 공부도 하며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단다. 훗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란다.

사랑하는 우리 딸 미경아!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네가 너무 보고 싶구나. 가까운 시일 내에 네 육신이 쉬고 있는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로 가야겠다. 우리는 천국에 있는 너와 할머니, 고모, 고모부와 반드시 만나야 하겠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단다. 우리 의지가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 바란다.

우리 다시 만나는 날까지 잘 있거라.

사랑하는 우리 딸 미경아.

Dear. 아빠



백향은 | 믿음상

아빠, 안녕!

금쪽같은 막내딸 향은이에요.

아빠가 하늘 세상으로 간 지 벌써 4년 하고도 4개월이 더 지났네. 갓 19살이던 나도 이제 23살, 어엿한 성인이 되었어. 시간 정말 빠르다 그치? 지나가긴 할까 싶던 그 아득한 시간이 참 힘들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 4년이 후딱 갔네. 그동안 나는 대학에 진학했어. 학교 다니며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나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 어른 흉내만 내는 거지만 말이야.

지금까지 용기 내어 도전했던 건 늘 성공이었고, 힘든 일도 없이 잘 지냈어요. 이렇게 큰 실패도 시련도 없이 지낸 건 다 아빠가 지켜준 탓이 아닐까 생각해. 이 믿음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히 살아야 되겠지!

하지만 가끔은 삶이 무겁고 무서워. 다 내려놓고 싶을 땐 꼭 아빠 생각이 더 나더라. 아빠도 그랬을까? 아마 내 부담감에 백배, 아니 천배? 아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어깨가 무겁고 아팠겠지? 그땐 왜 몰랐을까 늘 후회하곤 해. “그때 난 어렸으니까.”라고 비겁한 변명을 하며 도망치기도 했지. 가만히 숙인 고개와 지친 눈빛을 이제야 알았어. 참 많이 미안해. 아마 앞으로도 평생. 많이 힘들었지, 정말 너무 고생 많았어. 이 말을 이제야 전한다. 그 사랑과 노력, 헌신을 평생 갚아도 못 갚겠지만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잘 살아볼게요!

행복했던 일만 생각하며 살기도 모자란 인생인데 말이야. 왜 마음잡고 말하려고 하면 미안하고 후회되는 일들만 생각나는지... 점점 잊혀가는 기억들이 야속하지만 아빠가 줬던 사랑은 절대 잊지 않을게요. 받은 사랑만큼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살게. 엄마랑 언니, 오빠 그리고 이모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 너무 걱정하지 마!

내 꿈에 자주 나와서 거기서도 힘든 일이 있나 걱정했는데 바닷가에서 가족들이랑 일몰 보고 난 뒤로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보니 아빠가 우리랑 그제 참 보고 싶었나 보다. 일몰 그제 뭐라고 그걸 한 번 같이 못 보러 갔어. 그치.

아빠, 편안한 곳에 있지?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우리 열심히 살다가 아빠 있는 곳으로 갈게. 다시 만나. 꼭 다시 만나자. 그땐 같이 바다로 일몰 보러 가자!

언제나 사랑하고, 또 기억할게.

막내딸 향은이가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박상규 | 화평상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같은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는 것 같다. 감꽃 흐드러지게 필 때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우리 어머니가 90년의 긴 소풍 마치시고 천국 본향으로 떠나신 지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머니’ 하고 부르면 금방 안방 문을 열고 내다보실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곤 한다.

어제는 오래전에 어머니와 손잡고 꽃길을 걸으며 수많은 꽃송이를 세어 보았던 아침고요수목원에 다녀왔다. 새벽부터 내린 봄비로 미세먼지 깨끗이 씻어내려 맑은 공기와 따스한 햇살로 최고의 봄 날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때는 키아래 작은 나무들이 꽃 사이로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 십여년이 지난 지금은 고개를 높이 들어야 쳐다볼 수 있음에 화살처럼 빠른 세월을 실감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꽃은 물론 식물을 가꾸기도 좋아하셔서 창가 베란다에 오이와 상추를 심어놓고 날마다 물을 주시며 ‘예쁘고 탐스럽게 잘 자라거라. 오이야, 상추야.’ 속삭이셨던 모습이 생각난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샤워하신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얼굴에 스킨과 로션을 바르신 후 잠깐 머리손질을 하시고 방석 두 개를 준비해 “성령님 앉으시이소.” 말씀하신 후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신다. 오대양 육대주를 향한 기도는 아침 식사 드시기 전 9시까지 4시간 동안 성경을 봉독하시거나 찬송을 부르시며 계속되는데, 찬송가곡을 잘 모르시면 당신 마음대로 작곡하여 랩으로 부르셔서 옆에서 듣는 우리로 웃음을 터트리게도 하셨다. 점심과 저녁때도 똑같이 4시간여 기도를 하신다.

주일날과 수요일에는 단정한 모습으로 가꾸시고 교회 가느라 종종걸음을 치셨던 우리 어머니!! 한 달에 한 번 오산리 기도원 다녀와 피곤하실 텐데도 전도할 사람 생각났다며 벌떡 일어나 나가셔서 꼭 한 사람을 결신케 하셨던 믿음의 용장!! 그렇게 전도해 믿음으로 바로 선 가정이 수십 명도 넘으리라!! 90세 3월까지 이렇게나 건강하셨던 어머니님이 급성 신장염으로 고통을

당하실 줄 상상도 못 할 일이었다.

수요예배를 드리러 가시다 길에서 넘어지셔 담이 걸리는 바람에 4월 이후에는 문밖출입을 못 하셨지만 식사도 잘하시고 별 불편함이 없으셨기에 다시 회복되어 교회 나가시길 소원했었는데, 5월이 되어 보름 동안 완전히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어 그때는 금방 천국 백성 되시나 싶어 몇 번씩 위로 예배를 드리곤 했으나 주님 은혜로 다시 회복되셨다. 6월과 7월의 더위 속에서도 매일 기도 속에 잘 지내시던 어머니가 8월이 되어 조금씩 기운이 없다고 하시는 바람에 영양제 주사를 계속 맞고 며칠을 잘 견디시다가 8월 중순에 접어들며 몇 번 흑변을 보셨다.

9월 1일 밤부터 갑자기 더 아프다 신음하셔서 성모병원 입원. 5시간 동안 10가지의 검사를 받으시며 완전히 지치신 이후 급성 신장염이니 곧바로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는 결론!! 너무 아프기에 통증 치료만 원하셨던 어머니의 마음과는 달리 통증 치료만으로는 입원이 어려우니 바로 퇴원하라는 의사의 통보... 참으로 야박한 병원의 처사에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응급실에 1박 하고 2차 병원인 J 병원으로 입원. 모든 검사 자료를 다 가지고 입원했기에 바로 진통제 주사를 맞으시는데 너무나 깊은 몇

시간의 수면에 또 염려!! 오늘 밤 넘기기 힘들다는 의사 말에 아이들 조퇴하고 다 모여서 온 식구 긴장 속에 몇 시간을 할머니 옆에서 대기!! 4일 밤을 잘 넘기시고 오후가 되어 용산 교구 여섯 분의 성도들 오셔서 찬송과 기도드리며 예배….

숨이 차 말씀은 못 하시지만 오랜만에 만난 권사님들 알아보시고 반가워 악수하고 입술로 주기도문까지 다 외우신 후, 곧바로 심방 온 팀장님과 황 집사님의 천국 찬양을 들으시며 긴 호흡 후 영원한 본향을 향하신 우리 어머니… 참으로 숨찬 3일간의 일정 속에 어머니는 그렇게 원하며 기도하셨던 천국 본향 집으로 입성하셨다. 5월 보름 동안에는 대소변 받아내며 불평이 많으신 어머니 모시기가 참으로 힘이 들었는데, 8월 하순부터 곡기를 끊으시며 완전히 순한 양이 되신 모습에 이전의 막혔던 담이 확 뚫렸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고난 중에 어머니의 마음을 바꿔주셨고 천국을 소망하며 준비하게 하셨다.

입관하는 날, 어머니가 마지막 화장을 하고 누워계시며 ‘나 한잠 자고 일어날게.’ 하시는 것만 같아 자리를 뜰 수가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는 그렇게 우리와 언제까지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것 같다.

사람이 떠나면 좋은 것은 묻히고 나쁜 것만 떠오른다는데 어머니 떠나신 지 수십 개월인데 이렇게 그리워지기만 하는 것은 나쁜 기억들이 있었다 해도 감히 너무 많고 좋은 기억들을 밀어낼 힘이 없음일 것이다.

날마다 사진을 보며 더 잘 해 드리지 못한 안타까움에 속에서,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리움은 그냥 슬픔이고 아픔이다. 그러나 그 슬픔과 아픔조차도 소중한 것이 그리움이다. 그리움으로 살아 있는 것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가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반백년의 세월을 넘기고도 까딱까딱 물속에 잠겼다 나왔다 하는 바위섬처럼 어머니는 우리에게 그리움의 섬으로 살아 있으실 것이다. 그것은 어머니처럼 또한 내 아이들에게 작은 섬으로 남아 있을 거라는 예시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어머니의 섬은 우리 생명의 근원에 이르는 영혼의 숨결 같은 것이었지 않을까 싶다.

사랑하는 어머니님, 보고 싶은 어머니님



윤재식 | 화평상

사랑하는 어머니님, 보고 싶은 어머니님.

어머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이후부터 제 행복의 시계는 멈추었습니다.

늘 반갑게 전화 받아주셨던 그리운 어머니님의 목소리

“우리 아들 전화했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늘 사랑의 이모티콘을 담아 나에게 보내 주셨던 어머니님의 문자

“아들, 항상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거라.”

이젠 어머니님의 반갑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이젠 어머니님의 사랑스러운 감동의 문자도 받아볼 수 없습니다...

어머님의 모든 자취가 그림고, 그림고 또 그림습니다….

늘 건강하실 줄만 알았던 어머님께서 작년 10월 말에 암 선고를 받으셨고, 뭐가 그리 급하셨던지 항암을 시작하시자마자 11월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게 갑작스러웠기에 이별할 준비도 마지막이나마 함께 할 시간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머니를 제 마음에서 아직 보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생만 하셨던 어머님. 자식으로서 효도 한번 못한 것은 제가 눈 감는 날까지 한으로 남을 것입니다. 제가 불효자인데 생전에 효도를 하지 못한 제가 잘못된 것인데 왜 그렇게 빨리 가셔야 했냐며 오히려 하나님과 어머니를 원망하며 지냈습니다. 남겨진 가족은 어떻게 하며 살라고. 정말 어머님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가실 수 있느냐며. 아직도 이런 마음이 듭니다.

길가 공원에서 벚꽃을 구경하시는 어머님 연세와 비슷한 분들을 보게 되면 제겐 벚꽃도 꽃으로 보이지 않고 눈가의 눈물로 인해 세상은 흐리게만 보입니다. 식당에서 어머님 연세와 비슷한 분들을 보게 되면 더 이상 맛있는 식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모든 즐거움도 이젠 제게 즐거움이 되질 못 합니다.

아! 어머님, 제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지, 효도할 수 있게 시간을 주시지 하면서 이렇게 못나게 굴며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눈에 잘 보이지 않았던 어머님의 사진 중 두 장이 제 마음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어머님께서 아주 어렸을 적 주일학교에 다녔던 낡고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또 하나는 어머님께서 교회 신문에 우수 봉사자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 ‘그래, 우리 어머님께서 내게 바라는 것이 하나 있었지. 그건 바로 하나님 잘 믿는 것!’

그 아프신 몸으로 내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 한마디. “재식아, 하나님 잘 섬겨라.” 그 말씀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님의 인생은 가정과 일터, 그리고 오로지 교회였는데... 정말 시간 나실 때마다 교회에서 봉사하신 어머님의 위대한 그 정신을 이 아들이 본받고 살려 합니다.

어머님, 정말 저는 어머님이 자랑스럽고 어머님을 존경합니다. 이 사진들과 어머님의 유언과도 같았던 귀한 말씀이 다시금 나를 슬픔에서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물려주셨던 값진 신앙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위

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분명 어머님께서도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실 거라는 믿음 갖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 소망을 마음에 품고 신앙생활 잘하며 지낼 때 제 행복의 시계는 다시 시작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머님. 남은 가족들하고 하나님 잘 섬기며 이 세상 살다 우리도 어머니 곁으로 갈게요. 꼭 지켜봐 주세요. 특히 엄마가 너무도 사랑했던 윤희, 윤정이라도 신앙 안에서 잘 키울게요.

사랑하고 사랑하며 사랑합니다. 나의 어머님 나의 권사님!

2019. 4. 29.

아들 윤재식

사랑한다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해



안여진 | 화평상

사랑한다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해.

곁에 있을 때 왜 이 말을 그렇게 하기 어려웠는지... 후회스럽구나. 내 심장이 멈춰 버리게 한 잔인한 달 삼월이 가고 새로 시작된 한 달이 또 지나가는구나.

너를 가슴의 심장을 도려내듯 묻은 지 사계절이 두 번이나 지나갔어.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날이 말이야. 하루 네 시간의 통학이 힘들다고, 힘들어하면서 아빠가 가야 한다고 한 대학 생활을 일 년도 못 채운 채, 겨울이 시작되는 11월에 너의 몸에 아주 못된 놈이 있다는 사실을 선고받고 가망이 없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하늘이 무너져 내렸지.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제발 꼭 살려주세요!!!”

애걸하며 불가능에 미친듯이 너를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며

영원히 ‘완치’라는 그 말을 듣고자 너를 너무 많이 혹사시켜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무너무 미
안하구나. 그래도 그 노력에 3개월도 못 간다는 선고에 우린 5
년 4개월이란 세월 동안 많은 추억을 쌓았지.

나의 간절함 때문에 모든 게 소중했던 날들과 너의 소중한 많
은 친구들….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도 더 특별하고 소중했던 친구들….

너무너무 고마웠고 지금도 잊지 않고 찾아와 주는 예쁜 고마
운 친구들….

잠시나마 기쁨을 주었던 네 여자친구 또한 감사하고 감사했
어. 네 소중한 특별한 친구들 우리 아들 이상으로 사랑한다. 친
구들이 고마워! 우리 윤이가 제일 힘들었을 때 힘이 되어주고
변치 않는 친구가 되어주어 너무나 고마웠어.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네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엄마도 태
어나 가장 힘든 시기였어. 너무나 아빠가 힘들게 했을 때 내가
원망을 하면 너는 애늬은이처럼 그래도 누나랑 나를 낳아준 아
빠니까 미워할 수 없다는 너의 말. “그래도 아빠잖아.” 난 순간
명해졌다가 엄마가 너보다도 속이 좁았구나 하면서도 네 마음을

이해 못 해줘서 미안하다는 말을 못 한 게 또한 후회스럽구나.

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 윤아! 아무리 불러 봐도 대답 없는 윤아... 사랑한다. 미안했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힘든 시기 지나고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려 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너를 보내고 너무 가슴이 아프구나.

시간이 지나면 덜해지겠지 했지만 그리움은 날로 더 쌓여져 가는구나. 윤아, 나의 아들 윤아! 잠시나마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 기쁨을 주었던 날들 너무나 고맙고 고마워. 네가 병마와 싸움으로 엄마의 인생은 바뀌었고, 너로 인해 깨달은 나의 삶은 살아있는 날까지 내가 베풀 수 있는 모든 나의 능력과 사랑을 너를 다시 만나는 날까지 나눌 수 있는 모든 이들과 나누고자 매일 기도하며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쌓아가고 있단다. 우리 다시 만나는 날 기쁨으로 많은 얘기 나누자꾸나.

마지막에 고통스러운 통증에도, 진통제도 맞지 않고 애써 참으며 모든 이들에게 웃음으로 대해 주던 너! 지금도 그때 너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냥 목놓아 울게 된다.

윤아, 사랑하는 나의 영원한 아들 윤아.

이제 아픔 없는 천국에서 너의 밝은 모습 꼭 간직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다가 엄마와 만나는 날 그날 우리 다시 나누지 못한 얘기 나누자. 그날을 고대하며 하루하루 너의 몫까지 열심히 살아갈게.

보고 싶은 너무나 보고 싶은 나의 아들이!!!

사랑한다!!!

2019. 04. 30.

엄마가

할머니의 기도



전혜수 | 화평상

할머니의 오랜 기도는 뿌리 깊게 심기운 푸르고 우람한 나무....

4대가 한자리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벽마다 올려진 기도와 밤마다 드리진 기도는 아름다운 향연 되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셨지요.

순복음교회 서대문 시절부터 시작한 성도의 삶은 권사 직분을 받고 40여 년... 할머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과 싸움을 하시는 군대 장관이셨고 보이는 것만 보는 믿음 없는 가족들을 위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피투성이가 되도록 기도로 싸우시는 할머니... “젊을 때 주의 일 열심히 하거라. 늙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한다.” 하시던 할머니...

손자며느리를 응원하시는 할머니 덕에 시집살이도 견뎌낼

만했습니다. 조그만 자동차를 장만했을 때도 차 안에서 우리 손 잡고 간절히 무사고 기도를 해주신 할머니... 작은 일 하나하나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시던 할머니...

무덥던 여름 어느 날 저녁에 밥을 지으려고 거실로 가니 희미한 빛 아래 성경을 읽고 계시던 할머니의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었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할머니가 돋보기를 끼고 몸을 굽혀 성경을 보는 그 모습... ‘나도 저 나이에 저럴 수 있을까?’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생기던 날이었지요.

이천오년 꽃 잔치가 열리는 5월... 할머니 소천하시던 그날 일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웬일로 “나... 오늘 할머니 곁에 가서 자고 싶은데... 괜찮지?” 그렇게 말하는 그이가 참 예쁘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침대 위에 그이는 침대 밑에 자리를 하고 할머니 손을 잡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해드리고 찬양도 불러 드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출근하려고 집으로 올라왔는데 잠시 후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 목소리...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는데 온몸에 전율이 와 눈을 감았습니다. 잠자고 있는 사랑하는 손자의 모습을 보며 행복

하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천국으로 올라가는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는 듯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홀로 쓸쓸히 이 세상 떠나셨다면 어찌했었을고... . 어제 그이에게 주신 마음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마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긴 나그네의 삶 92년의 세월...

자손들을 위해 뿌리 깊은 나무 되어 심고 심으신 기도의 세월.
가까이서 섬기며 볼 수 있었던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

믿음의 조상이 되어 그 특권과 책임을 다하고 가신 할머니...

아무에게나 주시는 축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할머니의 기도를 이어 이제는 어머니도, 나도 기도의 어머니로 자리를 굳히며 할머님이 계시고 시아버님 계신 나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향하여 할머니의 자손들이 줄줄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할머니의 기도로 외손자 며느리가 되어 기도의 바통을 이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곡



이동준 | 화평상

벚꽃엔딩 노래가 거리에 가득하다. 아! 벌써 봄이다.

흩날리는 벚꽃 잎이 떠오르며, 오산리 기도원 입구에서 시작되는 낮은 언덕길... 그리고 왼편의 벚꽃 숲이 그려진다. 그래! 그곳에도 벚꽃이 가득하겠군. 매년 점점 예뻐지는 시골 처녀처럼... 그렇게 올해도 오산리 기도원 벚꽃 정원은 더 아름다워졌겠지.

2016년 4월 9일.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현종례 권사님께서 하늘나라로 즐거운 여행을 떠나셨다. 분명, 당신께서는 96년을 살아내신 이 땅을 떠나 평생 사랑하신 하나님과 아버님 곁으로 가시는 길이니, 당연히 신나고 즐거운 여행길이셨을 것이다.

먼저 와 계신 아버님 곁으로 어머니를 모신 날. (우리 아버님은 2010년 1월, 오산리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 은혜관에 먼저 오셨다) 그날도 오산리 벚꽃 정원은 순백의 하얀색으로 가득했었다. 그날도 하얀 벚꽃 잎은 사이사이 불어오는 바람에 흩날리며, 사랑하는 어

머님의 천국 여행을 축하해주었다.

아! 어머니를 모시고 기도원에 들어서는데 순간, 우리 가족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하얀 벚꽃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그 조용한 환영 인사를 잊을 수가 없다.

그래,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영원히 떠나보내는 슬픔과, 조용히 위로해 주던 벚꽃들의 축제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기일과 함께 기억할 수 있음이. 벚꽃엔딩 노래가 자주 들려온다.

어머님 기일,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 벚꽃 정원, 이제, 어머니를 뵈러 가야지. 사랑하는 가족을 영원히 떠나보내는 일은 슬픈 일이다. 물론 하나님의 자식들이나 우리들에게는 오로지 슬픈 일만은 아니나(천국으로 향하는 여행임을 확신하므로...), 그래도 연약한 인간인 우리들은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움을 피할 수 없다.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의 작은 화단들에 피어난 꽃들과 분수대가 있는 연못의 잉어들, 수천 년 전의 나무 화석 장식품들은... 아마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을 위로하는 배려일게다. 참 감사하게도 이 따듯한 배려는 메모리얼 파크 곳곳에 조용히 울려 퍼지는 음악(찬송가)과 함께 슬픔과 안타까운 가슴들을 어루만져 준다. 다시 한번 배려에 감사! 그러나 무엇보다

도 가장 큰 위로와 배려는 벚꽃 정원이 아닐까 한다. 그 누구의 생각과 손길에 의해 만들어진 벚꽃 정원인지는 모르나, 요즈음 파주의 벚꽃 명소라는 명성(?)을 얻고도 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사랑으로 맺어진 결실이라 확신한다.

어머니! 이 좋은 봄날! 아버님 손잡고, 천국에서 잠시 내려오셔서 우리 벚꽃놀이 소풍 같까요? 도시락은 저희가 준비합니다. 향기로운 차는 동생 내외가 준비한다네요. 사진은 손자 손녀 아이들이 찍을 거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께



김봉춘 | 화평상

개구쟁이 시절 개울가 다리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친 자식을
등에 업고 병원까지 십 리를 걸으신 어머니!

명절에 손자, 손녀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학용품도 사
서 공부 잘하라고 꼬깃꼬깃 구겨진 용돈을 꼭 쥐어 주시는 흐뭇
하고 넉넉함을 보여 주시던 어머니!

집 앞 당산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서 이웃 할머니 대여섯 분들
과 웃음으로 마냥 즐겁게 노시던 낙천적이신 어머니!

비에 흠뻑 젖은 정자나무에 등, 허리를 쿵쿵 치시는 어머니!

무릎 아픔의 고통을 이기려고 어린이 사랑공원의 흔들이 운
동기구로 다리 운동을 하시는 어머니!

하얀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아픈 다리를 추스르면서 하
염없이 집 앞 공원을 거니시는 어머니!

새벽 기도 갔다 오다 뵈는 힘찬 모습의 어머니!

친구처럼 가까운 재깍재깍 세월 가는 것을 알려주는 시계가
안 맞다고 고쳐 달라는 시간개념이 확실한 어머니!

집 앞문을 열고 복도에 서 있으면 따뜻한 어머니, 강한 어머
니 모습 선하지만 뵈 수 없어 그토록 가슴이 멍니다.

코스모스 한들한들, 청명한 날씨, 황록색에서 누렇게 익어가
려 하는 들판, 얼마 남지 않는 추석, 퇴직 후 첫 출근하던 날 모
두가 그리움을 더욱더 자아내기만 합니다.

꿈에서나 기도 속에서나 아버님과 같이 주님 나라 하늘나라
에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 놓입니다.

어머니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어머니!

2019. 04. 30. 칠순이 된 아들, 며느리 올림

아! 나의 어머니, 천사 같은 어머니



안효소 | 화평상

새벽닭 울음소리보다 먼저 일어나시어, 옷매무시하며 머리 단장하신 후 손녀딸이 사준 성경 가방 등에 지시고 날마다 행복하게 교회로 향하여 기도하시던 어머니!

오랫동안 지팡이 짚고 30년 동안 지정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는 성도 맞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성경 찾아주시고 기도 수첩 빼곡하게 적은 이름 불러 가시며 두 손 모아 한 영혼 위하신 우리 교회의 어머니!

행주처럼 구겨진 돈, 신권으로 바꾸시어 헌금하시고, 용돈보다 더 넘치게 손자, 손녀까지 챙겨주신 어머니!

성경 다독상은 독차지하시고, 병상에서도 손녀딸과 성경 이

야기를 나누시며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하게 함은’, ‘예수 사랑
하심을’ 유난히 좋아하셨죠!

따스한 손길로 학교 늦을세라, 예배 늦을세라 등 떠밀던 그
정성과 기도로 인생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우
리 가족은 꿈을 키웠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와 천사처럼 섬겨
주시고 평생토록 사랑해 주신 어머니!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오롯이 믿음으로 사신 어머니가 자랑스
럽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신 집에는 들어가기 싫고요.

어머니가 안 계신 예배는 생각하기 싫었어요.

사랑을 독차지했던 막내아들은 부모가 되어 이순이 벌써 지
났는데도 어머니의 사랑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미완의 존재입
니다.

어머니가 앉으셨던 자리를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걸으셨던 거리를 걸으면서

손자가 보내준 어머니의 영상을 보면서

바람결에 문이 열릴 때마다

어머니가 아닐까, 나의 어머니가 아닐까, 자꾸 돌아보게 됩

니다.

값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 보답할 길 없는 어머니의 사랑
불효자이었기에 자꾸 눈물이 납니다.

조정임 권사님! 나의 어머니!

어머니의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 주님이 계신 아름다운 천국에서 편히 쉬십시오!

그리운 어머니께 막내 올림

엄마



김임진 | 화평상

“엄마” 하고 불려도 불려도 대답은 없고 마음에 외닿는 희미한 엄마의 음성.

“그래, 어서 오너라.” 하고 반기던 엄마의 모습에 더욱 마음 저려옵니다.

‘엄마.’ 하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우리 엄마 요즈음 추위를 이기고 노란 개나리 벚꽃이 활짝 피어나는데 내 마음에는 엄마의 그리움만이 가득하답니다.

하늘나라에서 아버지랑 잘 지내지요.

엄마 우리 교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에 올라가거든. 그때면 엄마를 만나볼 수도 있는 날. 엄마를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에 모셔놓고, 기도원에 올라갈 때면 설레는 마음.

온 가족 교구 식구들과 함께 천국 환송 예배드리던 그때를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기면 은은히 찬송이 울려 퍼지고 엄마는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천국에서 늘 찬송이 끊이지 않는 곳에서 잘 계시겠지 하는 마음에 내 마음도 설레며 편안해지거든. 엄마는 사람들을 좋아하셨잖아요.

엄마가 봉안되어 사진이 붙어있는 그곳에는 따스한 햇볕도 맞으며 오고 가는 사람도 보고 “엄마 나 왔어.” 하고 엄마 사진 앞에 앉아 있으려면 반가워 웃으시며 “어서 오너라.” 하고 반기는 듯한 편안한 마음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기도해 줘.”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 치매 이시면서도 딸 얼굴만 보아도 좋아하시면서 웃으시던 그 모습.

어린아이같이 딸만 바라보고 계시던 엄마의 얼굴 아기 같은 볼을 만질 때면 더욱 엄마의 정을 느끼곤 했지. 엄마의 볼 한 번만 더 만지고 싶다. 모시고 살면서 잘해 드리지 못했다고 사위도 엄마 더욱 그리워하고 있어요.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고 지난 달에는 함께 다녀갔지.

늘 ‘엄마.’ 하고 마음속으로만 불러보았는데 이런 추모의 글 전

하는 귀중한 기회가 있어 부족한 딸은 엄마의 옛 그리움에 마음
껏 적어 하늘나라 주소로 보내는 기쁜 마음 엄마는 모를 거야.

엄마의 다정한 웃음소리 엄마의 목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에
내 귓가에 맴돌고 있어요. 오늘 밤도 꿈에서나 만나 볼까, 이젠
우리도 하나님 열심히 믿고 천국에서 만나길 기도할게요. 우리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살지요. 하늘나라에는 아픔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늘 감사와
찬송이 끊이질 않는답니다.

불러도 불러도 편안해지는 엄마 사랑해요. 기쁨만이 넘치는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엄마 딸 믿음 굳게 붙잡고 열심히 섬기
며 살아갈게요.

엄마 보고 싶다. 엄마 사랑해요. 다음에 또 소식 전할게요. 엄
마 딸이 그리운 마음 전해요.

2019년 4월 11일 밤

나의 영원한 남편 당신에게



김정애 | 화평상

사랑 아빠!!

당신이 우리 곁을 떠난 지도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다가오네... 아직도 나에게겐 7일밖에 안 된 것 같은데...

7년 전 유난히도 무더웠던 8월의 어느 여름날, 당신은 갑자기 우리 세 모녀만 이 땅에 덩그러니 남겨두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천국으로 여행을 떠났고, 그로 인해 가장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어린 두 딸들과 살아갈 길이 막막한 나를 향해 주님은 신학교로 오라 부르시며 4년간 선지 생도의 혹독한 훈련을 받게 하셨지. 그때 두 딸들과 살아갈 길은 오직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그러나 사랑 아빠!! 나 참 잘했지?

그로 인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은 아무 준비도 없이
아빠를 그렇게 일찍 잃고도 나중에 천국 가면 만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예쁘고 착하게 잘 성장해 주었어. 막내 빛나는 나
에게 내색은 안 하지만 아직도 아빠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우리 주님과 당신에게
감사하며 살아간다오.

당신을 마지막 보내던 그날 주님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기 위
해 오늘 이 하루도 가장으로, 엄마로, 그리고 주님의 도구로 열
심히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한다오.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나의
기도의 동반자가 된 당신이 늘 나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
을 테니 오히려 든든하고 감사해요.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은 주님의 도구로 충성하며 당신이 이
땅에서 못하고 간 하나님의 일까지 모두 마치고 주님께서 부르
시는 그날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남시다.

여보!! 사랑해.

2019. 4. 25.

당신의 영원한 아내가

소풍(소소한 일상 가족풍경)



박지연 | 화평상

벌써 10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곳 은혜관에 2009년 6월 30일 모시
게 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다.

내가 고등학생일 때, 그날 토요일은 유독 성가대 연습이 가
기 싫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해 여름, 서울의 가장 더운 날씨
로 기록되는 날이었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서였다.
아빠가 길에서 쓰러지셨으니 어른 모시고 병원으로 오라는 것
이었다. 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사는 담담하게 오늘 밤 장
례 준비를 해야 한다며 피가 터져 반 이상 죽은 뇌 CT 사진을
보여줬다.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의식이 돌아오
지 않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

가족 중에 아빠만 믿음이 없었고 어렸을 때는 엄마 성경도 찢

어버리시던 분이셨다. 긴급 상황인지라 형제자매 친인척분들이 목사님을 모시고 오셔서 중보해 주셨고 나는 교회로 바로 달려가 두 시간 내내 울면서 “그동안 엄마를 괴롭히던 아빠를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많은 분들의 중보기도가 응답되어 아빠는 그 후로 16년 동안 우리 곁에 계셨고 그 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 단 한 번도 교회를 가 본 적도 없으시지만 영접 기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셨고 호랑이 같은 성격이 양 같은 성격으로 되었다. 그 후 다시 사경을 헤매실 때도 천국 소망을 아멘으로 대답하셨다.

천국 가신 날도 중풍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나 살이 보들보들하고 깨끗하셨던지 119 대원분들도 신기하다며 그렇게 주무시듯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다 보니 장례식장이 마치 혼인 잔치날처럼 시끌벅적하였다. 웃음소리도 나고 천국 가셨다는 확신들 때문에 슬픈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사한 눈물이었다.

지금도 난 두 달에 한 번, 많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소풍 가듯 은혜관을 방문해서 아빠와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다. 아빠는 원래 더위와 추위를 많이 타는 분인데 여기가 관리를 잘 해주셔서 우리 집보다 좋다며 엄마는 아빠에게 얘기하신다.

하늘 우리 집 소망이 있고 그곳에 가면 모든 눈물 닦아 주실 분이 계시고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우리 가족은 소풍 나온 사람들로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즐겁게 살다가 천국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천국 시민 되신 10주년 아빠 축하드립니다.

심사평 1



그리움은 아름답습니다.

서른 세편의 글을 읽으면서 글의 위력에 놀랐습니다.

별처럼 슬한 이별이 우리 곁에 홀연히 왔다 떠나가지만 그 이별은 아픔 속에 힘듦 속에

그리움으로 아름답게 꽃 피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글은 곱씹을수록 슬픔, 절망, 체념이 희망임을 목격한 것입니다.

서른세 편 of 글에는 “열세 살 아들 잃은 어머니의 담담한 그리움”도 있고 “아빠 보낼 때 못 울었던 울음, 요즘 자꾸 운다.” 하면서도 아빠의 추억을 되새기며 재롱부리듯 상큼하고 발랄한 딸의 감성으로 유니크하게 표현한 글도 있습니다.

“시리고 아픈 것도 찬양소리를 들으면 여기가 천국이라는 위

안을 얻는다.”는 엄마의 깊은 신앙심에 뭉클함을 느꼈고 “신앙심 투철한 아내의 남편을 향한 思夫歌” 또한 감격이었습니다.

한 편 한 편의 글에서 살아 있는 자의 따스함을 내다보았고 그 섬세한 감성에서 생명의 온기가 전해 와 감동이었습니다.

서른세 편 중 최우수작 1편, 우수작 3편, 장려상 5편, 가작 11편을 뽑아 사랑, 믿음, 소망, 화평의 이름을 붙여 수상하기로 했습니다.

응모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심사평 2



(재)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 창립 15주년 기념으로 실시한 <제3회 추모의 글> 공모에 57명이 글을 보내와 네 명의 심사위원이 숙의 끝에 화평상 11편, 믿음상 5편, 소망상 3편과 최우수상인 사랑상 1편을 뽑았다.

우리 심사위원이 조혜경, 오예은, 백향은 씨 등의 좋은 글들을 뒤로 밀어 놓고 고심한 것은 백재심, 박종호, 강기원, 신체철의 글들이 더욱 감명을 주어서다.

먼저 백재심의 글은 한편의 사부곡(思夫曲)이다. 곁에 없어 더욱 그리운 남편의 부재를 엮은 절절한 아내의 이야기다. 다소 평범해 보이지만 이 글이 우리를 주목하게 한 이유는 “이별 후의 자세”에 관한 것이다.

슬픔 일색인 응모작 중 과장하지 않고 솔직한 감정 표현이 오

히려 돋보였다. 지나간 슬픔에 갇혀있는 것보다 참고 이겨내려는 “이별 후의 삶”이 맑고 순수해서 감동적인 것이다.

박종호의 글은 아버지를 그리는 참회록 같아서 그 진정성이 느껴져 좋았다.

안타깝게도 뒤늦게 발견한 아버지의 눈물에서 아버지의 체온, 아버지의 따뜻함,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랑을 깨달았다는 화자의 추모의 문장이 마음에 와닿았고 이 글을 읽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선물”이 될 것이라 믿는다.

강기원의 “아버지 아리아”는 모든 추모의 글 중 가장 유려하고 뛰어나다. 이는 글의 내용에서 밝힌 대로 시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화자의 이력 덕분일 것이다. 절제된 슬픔을 넘어 그녀의 글이 경쾌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 남아있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몇 줄의 뜻깊은 해답을 보여주고 있어 선정했다.

신혜철의 글에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스토리텔링, 말 그대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장해서 훗훗 뿌러달라는 유언을 어기고 늘 햇살 따사로운 곳에 안장해 놓고서는

“산기슭에 비라도 오면 어떡해”

“찬바람 불어 추우면 어떡해”

“추워 동동거리며 나무뿌리에 걸터앉아 울고 계시면 어떡해”

하며 유언의 부당성(?)을 은유적 기법으로 묘사해서 엄마 사랑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는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며 주님의 품 안에서 영생 평안을 빈다는 깊은 신앙심까지 내보이고 있어 최우수작 사랑상으로 뽑은 것이다.

심사위원장 김선옥

심사위원 전용선 천서봉 유병출

김선옥 심사위원장의 프로필

전 경인방송 대표이사, KBS아트비전 상임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분과 특별위원, 한양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

현 한국프로듀서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시인협회, 펜클럽한국본부 회원, KBS사우회 부회장

시집 모과나무에 손풍금소리가 걸렸다, 책 만드는 집, 고요아침, 우리는 세상에 입원하고 있다 등 다수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이
띄우는 그리움의 편지들,
그리고
천국 소망...



언젠가는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엄마를 다시 만난다는 소망은 참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때까지 천국에서 우리들을 기다려 주세요.
-본문 중에서



값 10,000원

ISBN 978-89-8304-291-0